

#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 문승우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내달 시행 예고

지난 2021년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하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되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2월에는 전주 옛 대한방직 공장건물 철거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무리한 공법 적용, 안전망 및 안전발판 등 추락방지장치 미설치가 주요 원인이었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 4)이 도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전라북



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만큼 해체공법적용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쉽게 생각하고 관리가 매우 소홀한 편"이라며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 및 감리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체공사시 공자 등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임시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누구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도시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건축물 해체공사현장은 계속 늘어날 것인 만큼 해체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조례로 정해 전라북도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안전관리에 나서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뿐만 아니라 건설관계자 및 건설노동자, 그리고 도민 모두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이 기본중에 기본이 되는 사회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국민들과 5년간 함께 이룬 성취 무너져... 과거로 되돌아가 허망”

### 문 전 대통령 “현실정치로 소환하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문재인 입니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영화를 만든 이창재 감독과 제작을 맡은 김성우 프로듀서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비이다'에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함께 성취를 한 것"이라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과거 "자연인 문재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발언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정치 영역에서는 이제는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것인데 끊임 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끊임 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중국과의 교류협력의 방안 논의. 18일 상하이(邢海明) 주한중국대사(사진 왼쪽)가 전라북도를 방문한 가운데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중국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민주 안호영 의원,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 33억11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완전 무장 지역 2023년 상반기 교육특별교부금(이하 특교) 총 33억1,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는 △무주군 안성고 체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14억3,900만원 △완주군 한별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10억900만원 △장수군 백화여고 본관동 및 기숙사동 외벽 보수 5억2,200만원 △장수군 천천중학교 외벽교체 2억400만원 △진안군 진안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옥상방수를 위한 1억4,700만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완전무장의 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들 학교 체육관은 노후화되어 목재 바닥이 벗겨짐이 많고 벽면이 파손되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 학교 및 기숙사 외벽과 옥상방수 또한 균열과 들뜸, 탈락 등으로 누수 위험이 커져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로 체육관 리모델링 및 외벽보수, 옥상방수 공사 등을 실시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학습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확보된 예산으로 관내 5개 학교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의 교육현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소통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출국에 앞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농번기 인력지원 소홀한 부분 없이 적극 대응”

###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무주군 찾아 농정 현안 점검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해 18일 무주군을 찾아 농촌 인력수급 상황과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등 농정현안을 살폈다.

먼저 올해 농촌인력증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 중인 무주농협을 방문한 김종훈 부지사는 코로나 제한조치 전면 해제로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이 올해 상반기에만 2,680명으로 확대돼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다소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으로 외국인 인력을 공급받은 농가와 민나 최근 인력 수급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소규모·고령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타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밀한 현장 점검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무주군 가족실습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해 18일 무주군을 찾아 농촌 인력수급 상황과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등 농정현안을 살폈다.

농장도 점검했다. 무주군 가족실습농장은 1년 동안 총 10가구가 임시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2022년 10세대 11명이 입교해 8세대, 8명이 정착했다.

또한, 젊은 가족단위 귀농귀촌인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전북형 귀농·귀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도 살폈으며 무주군은 2024년까지 총 36억 원을 투자해 거주시설

20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시·군의 인력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에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이에 더해 귀농귀촌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과, 도농교류 활성화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기자·무주=전문선기자

## “대출금리 인하 공약 제시할 것”

### 진보당 강성희 의원, 국회 정무위 배정

지난 4·5 재선거에서 국회에 입성 한 뒤 '국방위원회 배제 논란'에 휩싸였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신 국방위에 가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강 의원을 정무위원회로 보임하고 제가 국방위원회에 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 원내대표와 협의한 강 의원의 1순위 희망이 정무위원회의 것"이라

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강 의원의 심의위 배정 문제(논의)를 이어갔고 매듭지었다"며 "윤 대표가 정무위에 사보임 하면서 배제 가능하다고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도 이날 입장을 내고 "저는 후보 시절 대출금리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앞으로 정무위에서 서민금융 지원 등 금융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분류되는 진보당 소속 강 의원은 이번 4·5 재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뉴시스

## 열흘간 국내 머문 이낙연 전 총리 측근 의원 환송속 미국으로 출국

### 6월 귀국 예정

정인상으로 열흘간 한국에 머물렀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18일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최근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인 발언에도 관심이 높았지만,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에 인천공항에서 도착해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다.

출국 과정에서 최근 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출국길에는 민주당 소속 김철민, 윤영찬, 윤재갑, 이병훈, 전혜숙 의원 등 측근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출국 전 모여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있었던 한 의원은 "독일 강연 등 앞으로 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 별다른 정치적인 메시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얼마 전 친이낙연(친박)계와의 민관 화동에서 최근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소개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언론에 나온 일부 발언이 '뽕'에 자신이 쓰는 용어가 아닌데 왜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친박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10명 기량과 저녁 식사를 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돈 봉투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이 전 대표도 이에 대해 우려했다고 한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따라 검찰이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 역시 관계자를 통해 흘러나온 발언일 뿐 본인이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아니다. 정인상을 위한 한국행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 자체를 경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문론의 주 목은 받았지만 본인은 정치적인 언행을 엄중하게 아꼈다"며 "별다른 메시지 없이 조용히 상반 치르고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국한 이 전 대표는 오는 6월 귀국할 예정이다. /뉴시스

## ‘식민사관 준용 논란’ 전라도 천년사 내용 공개키로

일제 식민사관을 차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역사서 '전라도 천년사' 내용이 공개된다.

전북도는 18일 전남도, 광주시, 편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전라도 천년사 6권을 2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문구와 내용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먼저 받은 뒤 편찬위 검토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사서를 발간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역사 왜곡 가능성이 있는 부

분에 대해서는 수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도 천년사는 2018년부터 호남권 3개 광역단체가 24억 원을 들여 추진한 역사 기록 프로젝트다.

초고 5만4000매를 수집하고 시·도별 편찬위원회의 1차 검수와 2차 전체 편찬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찬 최종보고를 채택하는 등 단계별 발간작업을 이어왔지만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